

## 김정일의 9.9절 불참과 향후 북한체제 전망

### 북한연구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창건일인 9.9절 행사에 불참함에 따라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내외신은 각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수주전 이미 쓰러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로서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미 김정일은 오래전부터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중병설은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예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병설을 계기로 김정일 유고시 북한체제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김정일의 유고상황은 북한체제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소위 선군정치라는 이름하에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북한은 선군정치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의 관계에서 당이 앞자리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의 이완은 불가피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선군정치하에서 당을 통해 군과 내각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과 내각의 주요부서를 직접 통제하는 직할통치체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정치국이나 비서국과 같은 협의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김정일이 측근들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인적통치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비제도화된 정치체제하에서 절대권력자의 급작스러운 유고는 정치체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고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권력기반이 없는 어린 아들로의 후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김정일의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단순한 와병상태라면 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이 의식은 있으나 병세가 장기화된다면 침상에 누워서 혹은 휠체어를 타고 수렴청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정일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명받은 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당과 군의 실세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위원회가 형식상 권력의 중심에 남아있으면서 후계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도기 기간 중 집단지도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상황에 따라 각종 유연비어의 유포, 주민들의 동요, 대량난민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의 유고상황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우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을 때는 김정일이라는 분명한 후계자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핵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그 해 10월 북·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계자 없이 김정일의 유고상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대외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차기행정부가 들어서 외교안보라인이 정비되는 내년도 중반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며 접촉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한편, 김정일의 유고상황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묵인하에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주변 정세가 급변할 것이다.

이번 김정일 중병설은 한동안 잊혀졌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 이번 중병설을 계기로 김정일의 유고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차분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